

# 안동지역에서의 풍수경관

옥한석

강원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 I. 서론

### 1) 연구목적

풍수지리의 밑바닥에 흐르는 논리는 무엇보다도 산을 생명력을 가진 유기체로 간주하여, 사람에게 기운이 있는 것과 같이 산이 지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지기가 강하게 집결되는 곳에 살거나 묘지를 쓰게 되면 본인과 그 자손이 부귀와 영화를 누린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상당히 신비적이고 종교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입장을 탈피하여 계절과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면서 살아가고자 한 우리 선조의 생활 태도와 소박한 철학이 배어있는 전통적인 자연관이라는 입장에서 풍수지리를 이해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이른바 명당이라고 하는 풍수 경관을 조사하여 그 형태와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형태와 특징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풍수지리의 원리를 오늘날의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 2) 연구내용,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 명당이라고 하는 것들의 형태와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명당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양택, 즉 집자리에서는 그 형태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음택, 묘지에서는 잘 나타나므로 본 연구는 묘지 풍수를 중심으로 하여 그 형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형태와 그 특징을 살펴보는 일은 경관적인 분석을 말하게 되므로 본 연구는 묘지를 중심으로 하여 풍수 경관의 특징을 이해하고자 한다.

그러나 명당으로 알려진 묘지가 전국적으로 무수히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경관 상 다양한 형태와 특징을 살펴보고 이들로부터 공통된 특징을 찾기 위해서는 자연적 조건이 같은 연구 지역을 선정해야 한다. 그래서 본 연구는 안동 지역을 연구 지역으로 선정하고자 한다. 안동은 하나의 유역 분지이며, 『택리지』에 의하면 ‘안동 등 고을은 이백의 남쪽에 자리잡고 있는데 이곳은 신이 내린 길지라고 할 수 있다. 태백산 밑은 산이 평평하고 들이 넓어 밝고 수려하며, 흰 모래와 단단한 토질이어서 그 기색이 한양과 비슷하다’고 하였다. 즉 안동 지역은 분지 지역이며 명당으로 된 묘지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 다행히도 안동문화원에서 발간한 『안동의 분묘』라는 책에 안동의 주요한 묘지들을 소개하고 있어 이 책에 나오는 묘지들을 일일이 답사하여 그의 풍수지리적인 형태와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안동에 소재한 모든 묘지들이 명당은 아닐 것이다. 답사를 통해서 명당으로 확인된 묘지들은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이것이 바로 형태이다. 이들 형태의 공통된 특징을 파악하면 바로 그것이 풍수 경관의 이해가 된다.

### 3) 국내·외 연구동향

풍수 경관의 형태와 유형, 그리고 그 특징을 아는 것은 쉽지 않다. 어떤 곳이 명당인가 하는 것은 풍수사의 수학 배경과 주관이 상당히 작용한다. 명당을 판별하는 방법은 간룡법, 득수법, 좌향론, 점혈법, 형국론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형국론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한다. 간룡법, 득수법, 좌향론, 점혈법은 형국론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계절과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여 살아가고자 한 우리 선조의 생활 태도와

소박한 철학이 풍수지리의 기본 논리였다면 형국론이 이를 잘 말해 준다. 즉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자 한 소박한 염원이 풍수지리에 배어있고 이는 형국론으로 표출되어 있다. 형국론은 중국의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것과 차이점이 많은 우리 풍수지리의 고유한 면이다. 이는 이른바 형기론(形氣論)으로 불리워지는데 이기론과 달리 자연 현상에 빗대어서 산을 해석하고 있는 점이 큰 특징이다. 이기론(理氣論)의 바탕이 된 음양오행설보다는 산을 직접 의인화하고 의물화하는 것 보다 손쉽기 때문에 형기론이 먼저 성립되었고 나중에 이기론으로 체계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욱 설득력있다. 풍수지리의 논리가 중국에서는 이기론으로 더욱 발전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태산 준령보다는 자그만한 들을 낀 구릉지가 많기 때문에 형기론으로 발전하였는지도 모른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형기론의 입장에서 명당의 형태와 특징을 살펴보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지기(地氣)와 천기(天氣)를 얻는 것에 관하여 이기론과 형기론-양자의 입장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이기론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이기론에서 형기의 지기를 얻는다는 것은 태조산에서 발맥한 행룡이 소조산을 일으키고 주산까지 회룡기복을 한 다음 주산에서 혈처까지 입수하여, 좌우 용호가 명당을 에워싸게 되는 곳을 말한다. 또한 앞으로는 안산과 조산이 펼쳐져 그 사이로 외산외수가 모여 새지 않아야 하는 곳이다. 이기론에서 이기의 천기를 얻는다는 것은 생기가 넘치는 방위에서 혈을 맺고, 생기가 넘치는 방위에서 득수를 할 수 있도록 점혈을 한 다음 길한 연월일시를 정하여 장사를 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다음으로 형기론의 입장은 같다. 형기론에서 형기의 지기를 얻는 것은 이기론과 마찬가지로이다. 그러나 이기의 천기를 얻는다는 것은 이기론과 달리 전후좌우 고저경중의 균형이 맞는 곳에 혈처의 방위를 정하는 것을 말하며, 망자의 생전 업적이나 자녀의 효심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기론에서는 생기가 넘치는 방위를 찾기 위하여 패철(나침반), 즉 나경(羅經)의 1선에서 9선까지 활용하게 되지만 형기론에서는 4선만 활용하게 된다. 천간지지와 음양오행 원리를 이용하여 나타난 1선에서 9선까지의 다양한 음양의 배합을 혈처의 방위에 활용하는 이기론과 달리, 형국내에서 전후좌우 고저경중에 의하여 나타난 혈처의 방위를 4선의 24방위로 표시하는 점이 형기론이다. 다시 말해 이기론에서는 좌를 정하고 운이 맞는 매장의 일시를 정하거나 일시를 정해놓고 좌를 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형기론에서는 매장의 연월일시와 망자의 생년태세가 중요하지 않다. 좌향은 명당의 형체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이다. 형기론은 장법(葬法)을 소홀히 하지는 않지만 혈처의 방위가 음양오행에 부합해야 하고 장사의 택일이 길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장사의 일시에 따라 좌향이 정해질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풍수의 요체가 ‘지극한 효심에 의하여 자신과 가문이 번성과 영화를 누리며 사회에 봉사하는데 있다고’ 한다면 장사의 택일과 망자의 생년태세보다는 자손의 효심과 덕행이 중요하다고 본다. 지기의 발운을 음양오행에 의하여 설명하든 형국에 의하여 설명하든 명당명혈은 자연의 조화에 의하여 이미 정하여져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사심없고 역사적 안목을 갖춘 풍수사가 덕행과 효심을 갖춘 이들에게 명당을 점지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지기와 천기를 얻는다는 것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 II. 명당의 분포와 경관 상의 특징

### 1) 명당 분포

안동부근에 나타나는 형태는 모두 33가지인데 이들은 봉, 학, 꿩 등의 날짐승, 모란, 연꽃, 칙녕쿨 등의 꽃, 닭 등의 길짐승, 거북, 뱀 등의 들짐승, 등잔, 가마솥, 밥상 등의 물건, 기타 용, 달 등으로 상징된다. 그빈도수를 보면 모란 꽃이 4곳, 봉이 3곳 나타난다. 그 외 제비가 2곳, 가마솥이 2곳, 밥상이 2곳, 꿩이 2곳, 칙녕쿨이 2곳 나타난다. 이러한 빈도로 보아서 안동의 경우 모란형과 봉형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서하전, 장군대좌 등과 같은 형태가 나타나지 않지만 대부분의 유형이 나타나, 안동 부근은 명당의 일반적인 특징을 알 수 있기에 충분하다.

- ①,⑬봉이 등우리를 친 형(봉소형, 鳳巢形)
- ②,③제비가 등우리를 친 형(연소형, 燕巢形)
- ④뱀이 머리를 든 형(사두형, 巳頭形)
- ⑤,⑭가마솥이 걸려있는 형(복부형, 伏釜形)
- ⑥,⑮밥상에 음식을 차려놓은 형(금반형, 金盤形)
- ⑦,⑯연꽃이 물위에 떠 있는 형(연화부수형, 蓮花浮水形)
- ⑧학이 하늘로 날아오르는 형(비학상천형, 飛鶴翔天形)
- ⑩,⑰땡이 매를 피해 숲에 숨는 형(복치형, 伏形)
- ⑪,⑱,⑲,⑳모란 꽃이 반쯤 피어있는 형(모란반개형, 牡丹半開形)
- ⑫구름속에 달이 떠 있는 형(운중반월형, 雲中半月形)
- ⑬,㉑등잔불이 달려 있는 형(괘등형, 卦燈形)
- ⑭,㉒취녕굴에 꽃이 피어 있는 형(갈화반개형, 葛花半開形)
- ㉓닭이 알을 품고 있는 형(금계포란형, 金鷄包卵形)
- ㉔학이 냇가로 내려오는 형(가학조천형, 嘉鶴朝川形)
- ㉕거북이 물에 들어가는 형(영구입수형, 靈龜入水形)
- ㉖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형(비룡상천형, 飛龍翔天形)
- ㉗큰 뱀이 숨어있는 형(장사은산형, 長巳隱山形)
- ㉘벌이 집을 지은 형(봉소형, 蜂巢形)
- ㉙,㉚학이 날아가는 형(비학형, 飛鶴形)
- ㉛봉이 날아가는 형(비봉형, 飛鳳形)
- ㉜거북이가 물에서 나오는 형(영구예미형, 靈龜曳尾形)

이들의 분포를 살펴보면 크게 낙동강 본류 이북 쪽에 집중한다. 지형적으로 보면 낙동강 본류의 남쪽이 등고선이 조밀하여 산지가 가파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산지가 가파르면 험처가 상당히 높은 곳에 뻗이기 쉽기 때문에 비교적 접근하기가 쉬운 구릉성 산지가 넓게 펼쳐져 있는 북쪽에 명당이 산재하게 되었다고 본다. 고도 상으로 해발고도 200미터 부근에 대부분 입지한다. 무릇 명당이란 안산과 조산을 넘어 득수가 잘 이루어져야 하므로 낙동강 본류를 중심으로 하고 그 지류를 향하여 분포하는 것은 당연하다.

## 2) 경관 상의 특징

낮은 구릉, 완만한 사면 및 높은 배후 산지로 이루어져 있는 안동 지역에서 나타나는 형국은 장풍(臧風)과 득수득파(得水得破)가 잘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5가지로 요약이 된다.

첫째, 반개방적인 특징이 나타난다. 명당에서 앞산을 바라보면 안산이 나즈막하여 멀리 조산까지보여야 하는 것이다. 험처에서 명당까지의 거리에 따라 반개방성의 정도가 다르지만 무엇보다도 앞이 꼭 막혀서는 되지 않는다.안산이 없이 큰 물이 흐르게 되는 용체나 말체의 경우는 예외이다.

둘째, 중첩적인 특징이 나타난다. 여기서 중첩성이란 명당을 에워싸고 있는 산수가 중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험처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로 산이 겹겹이 에워싸고 특히 안산과 조산이 3중첩되어야 한다. 모란혈의 경우가 보면 꽃잎처럼 겹겹이 에워싸게 된다. 각각의 형국에 따라 중첩성의 정도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중첩성을 지향한다.

셋째, 안정적인 특징이 나타난다. 주산에서 다양하게 험처까지 입수하게 되지만 험이 뻗어 있는 곳은

등혈이 그것이다.

뱃재, 조화성을 나타내어야 한다. 형체에 걸맞는 특징이 주위 산수에 나타나야 한다. 뱃재의 경우 개구리와 같은 안산이, 복부의 경우 혈처 주위에 부싯돌과 같은 혈증이 지표 상에 보여야 한다.

다섯째, 균형적인 특징이 나타난다. 전후좌우의 대칭적인 곳에 대개 혈처가 뱃히며, 물의 경우는 항상 득수가 되어야 하며 수구가 보이지 않게 된다. 이를 균형적인 특징이라고 한다.

### III.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안동지역에 있어서 이른바 명당이라고 하는 음택 풍수 경관을 조사하여 그 형태와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안동문화원에서 펴낸 『안동의 분묘』에 나오는 분묘를 대부분 조사하고 이를 형기론적 입장에서 형국으로 분류하였다.

태백산에서 소백산을 잇는 낙동정맥 상의 문수산(1206m)에서 하나의 지맥이 남쪽으로 흘러 태자산, 박달산, 오적산, 학가산(870m), 보문산(643m), 검무산(331m)을 이루어내어 안동의 서쪽 산줄기를 형성하며, 태백산에서 백병산, 일월산, 주방산(주왕산), 보현산, 황학산, 오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가 우측을 이루어내어, 이들 우백호와 좌청룡이 안동군 풍천면의 구담리에서 마주하게 된다. 그 사이로 안동군, 예안현 등이 입지하였다.

이러한 안동의 산세에 따라 낮은 구릉, 완만한 사면 및 높은 배후 산지가 전개되며 낙동강 본류와 지류가 흘러 다양한 형국이 나타나게 된다. 안동의 경우는 날짐승(봉, 학, 꿩), 꽃(모란, 연꽃, 칙녕쿨), 길짐승(닭), 들짐승(거북, 뱀), 물건(등잔, 가마솥, 밥상), 용, 달 등이 33개가 나타난다. 이들의 분포를 살펴보면 크게 낙동강 본류 이북 쪽에 집중한다. 이들 명당은 고도 상으로 해발고도 200미터 부근에 대부분 입지한다. 무릇 명당이란 안산과 조산을 넘어 득수가 잘 이루어져야 하므로 낙동강 본류를 중심으로 하고 그 지류를 향하여 분포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들 명당의 형태와 공통된 특징을 살펴본 결과 명당은 반개방성, 중첩성, 안정성, 조화성, 균형성의 5가지 특징이 나타나는 곳이다.

이러한 명당의 특징은 태조산, 중조산, 소조산을 거쳐 주산 아래 산이 겹겹이 에워싸게 되고, 계곡물의 여러 줄기가 합수하고 물이 역류하지 않으며 잘 감아도는 곳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명당의 기본적인 원리는 장풍(藏風)과 득수득파(得水得破)이다. 장풍과 득수란 '국'(局), 즉 산줄기와 수계로 이루어진 일정한 범위 속에 만물이 생태계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인 '체형(體形)'의 의미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는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申景濬, 『山水考』

『山經表』

丁若鏞, 『大東水經』

一然, 『三國遺史』(李載浩 역), 광신출판사, 서울.

徐善繼. 徐善述, 1564, 『人子須知』(金東奎 역), 명문당, 서울.

張翼鎬, 1983, 『遊山錄:風水地理 千年을 整理한다』, 종문사, 서울.

張志煥, 『旅山錄』, (미출판)

최창조 .역, 1993, 『청오경. 금낭경: 풍수지리학의 最古 經典』, 민음사, 서울.